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생명의 빵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내고는, 그분이 어떻게 그곳에 오셨는지 놀라며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까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혼자 산으로 물러가셨던 분께서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양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배불리 만들어 주시려고 다시 군중 속에 섞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보다는 ‘무엇을 얻을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육체의 양식에만 쏠려 있습니다. 일은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일의 목적 또한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요한6,26)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영이 아니라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세에서 이익을 얻어 보려는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까! 어떤 이는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면 성직자의 중재를 청하고, 어떤 자는 자기보다 큰 권력을 가진 자에게 억압당하면 교회로 피합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자와의 일에 다리를 놓아 줄 것을 바라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원하고 어떤 이는 저것을 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단지 예수님만을 원해 그분을 찾는 이는 참으로 드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다른 것을 위

---

해 나를 찾는다. 나를 위해서 나를 찾거라.’ 당신 자신이 곧 양식이라는 진리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건만 만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부르게 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는 어리석게도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생각하는구나. 너희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좁게, 단지 한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자애를 드러내려 하셨다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이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온 세상을 확실히 배불리 먹이고 완전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아버지 하느님의 외아들이야말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게 주신 참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사람들의 몸을 배불리 먹이신 것은 그들이 덧없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추구하게 하려는 뜻이었을 뿐임을 사람들이 알기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영적 음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인정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의 인장, 곧 날인이시기에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느님의 인장을 받으며, 그 인장은 우리 안의 사랑과 완전함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도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군중은 아직도 믿음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당신께서 방금 말씀하신 빵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밝히며, 군중의 생각을 덧없는 빵과 포도주에서 서서히 당신의 참된 몸과 피로 돌릴 기회를 찾아내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신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생필품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유일하게 참된 빵이시며, 만나는 예시였을 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그분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약속하신 물이 그녀의 구원을 보장하듯 먹는 이를 새롭게 하고 계속 살아가게 해 줍니다.

문경 본당 최상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시고 함께 하시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욕망으로 멸망하는 옛 인간을 벗어나 진리의 외로움과 거룩함을 지닌 새 인간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니다.

**입당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 본기도

†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제1독서 : 탈출기 16장 2절-4절. 12절-15절

**안 내** : 주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묵 상** : 주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지만, 따라야 할 지지도 알려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며,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화답송** :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제2독서 : 에페소서 4장 17절.20절-24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인들에게,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묵 상** :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기 보다는 헛된 마음으로 세상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새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적 양식을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양식보다 먼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6장 24절-35절

---

**강 론 :** ‘생명의 빵’(1-2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재물’

**영성체성가 :**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영성체 후 묵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차  
이집트의 종살이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에페소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헛된 마음과 욕망으로 멸망해 가려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은  
표징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 것 때문에  
주님께 열광합니다.

**<침묵>**

우리는 왜 주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체를 영합니까?

**<침묵>**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공지사항**

**파견성가 :** 19번 ‘주를 따르리’

**※ 공소사목 성금**

익명                      2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75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알 림

###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8월4일, 18일, 9월1일, 15일, 29일  
10월13일, 27일, 11월 3일(총 8회)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 초등부 성소자 캠프

- 일시 : 8월 7일(화) 14:00-8일(수) 14:00
- 장소 : 우곡성지
- 장소 : 성소에 관심있는 초등부 남학생 (3-6학년)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편한복장, 운동화, 샌들, 갈아입을 옷 등
- 참가비 : 1인 30,000원
- 신청 : 7월 31일(화)까지 사목국으로

### ■ 2018년 귀농(귀촌)신자 모임

- 일시 : 8월 9일(목) 10:00 - 점심식사
- 장소 : 안동 교구청
- 준비물 : 미사 준비
- 신청마감 : 8월 2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 가나 혼인 강좌

- 일시 : 8월 25일(토) 13:00-18:00
- 장소 : 안동 교구청 (3층 대회의실)
- 참가비 : 1인 1만원
- 준비물 : 미사 준비, 필기구
- 신청마감 : 8월 11일까지 사목국으로
- 신청자격 : 결혼을 앞둔 남·여

### ■ 청년연합회 성지순례

- 일시 : 9월2일(주일)
- 장소 : 한실교우촌 및 상주 옥터
- 준비물 : 운동화, 편한 복장, 개인 도시락, 물
- 회비 : 1만원
- 신청마감 : 8월24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 변지안(아네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산책

- 주제 : “응답하셨습니다?”  
(영화 ‘침묵’을 보며)
- 일시 : 9월28일(금) 19:00~21:00
- 장소 : 교구청 강당
- 작가소개 : CJ E&M 작가, 작가 창작집단 <작심> 대표, 영화 <아빠는 딸> 각색, 영화 팟캐스트 <맥거핀> 진행자, 제주 문화재단 <고사리> 연극 각본,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영화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현재 <흙> <더 라인> <미스마일> <기담2> 등이 캐스팅 중

### ■ 여성 제40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8월9일(목) 14시-8월12일 17시 [3박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 12만원
- 접수마감 : 7월 13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후 3년 이상 견진성사 받은 분

###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 제86차 안동ME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8월 12일까지
- 신청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부부, 비신자, 사제, 수도자, 타종교인 가능
- 문의 및 신청  
김좌중(M.콜베) 010-6580-8408  
천연화(베로니카) 010-6500-8408

###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썩 미숫가루 가격 : 1kg 15,000원  
(청정지역 썩과 유기농 곡물 미숫가루)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 1일 영성 피정

- 일시 : 8월 18일(토) 10:00~17:00
- 장소 : 하망동 성당
- 강사 : 서정혁 프란치스코 신부(청주교구)
- 회비 : 5천원(식사대)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8장

###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 ‘규범과 식별’

308. 또한 정신적, 역사적, 심지어 생물학적인 정상 참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복음적 이상의 가치를 줄이지 않으면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성장이 가능한 단계마다 자비와 인내로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선을 실천하도록 촉구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저는 조금도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좀 더 엄격한 사목을 선호하는 이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간의 나약함 가운데에 심어 주신 선함에 교회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다고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객관적인 가르침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언제나 좋은 일을 합니다. 거리의 진흙탕에 신발이 더럽혀지더라도 좋은 일을 합니다.” 교회의 목자는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온전한 이상을 제시하면서, 연민의 논리로 나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성급한 판단과 박해를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인간 불행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개인이나 공동체의 피신처를 찾는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온유한 사랑이 지닌 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긴밀해집니다.”

309. 이 후속 권고의 성찰이, 자비에 바치는 희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섭리입니다.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 안에서도 “교회는 복음의 뛰는 심장인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자비가 모든 이의 마음과 정신에 가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흔 아홉 마리가 아니라 백 마리의 양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두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가운데에 이미 현존하는 하느님 나라의 표징으로서 자비의 향유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모든 이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310. 우리는 다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비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일 뿐 아니라, 참된 하느님 자녀의 식별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단언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먼저 자비를 입었으므로,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낭만적인 제안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최고의 것을 추구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나약한 대답도 아닙니다. “자비는 교회 생활의 토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목 활동은 온유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온유함을 신자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이든 세상에 대한 증언이든 그 어떠한 것도 자비가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은총의 촉진자보다는 은총의 세리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 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311. 윤리 신학의 가르침은 이러한 생각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도덕에 관한 교회 가르침의 온전함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의 가장 높고 중심이 되는 가치들, 특히 무상으로 먼저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사랑의 수위성을 강조하고 권장하는 데에 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사목 분야에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자비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내세우면 자비의 구체적 의미와 참된 중요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는 복음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비는 정의와 진리를 배척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자비가 정의의 완성이며 하느님의 진리를 가장 찬란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전능 자체, 특히 하느님의 자비를 문제 삼는 모든 신학적 견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312. 이는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탁상공론식의 냉정한 도덕만 펼치지 않게 돕는 바탕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목적 식별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며 동행하고 희망을 지니며 무엇보다도 모두를 통합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는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교회에 널리 퍼진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신자 여러분이 자신의 목자에게, 또는 주님께 봉헌한 삶을 사는 평신도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바람에 늘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개인적 성숙의 길을 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빛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목자들이 신자들의 말에 사랑의 마음으로 침착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과 관점을 바른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알맞은 자리를 찾도록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다음에 계속 -



## 여름 단상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 무더위

이런 날은 상상력을 발휘할 것. 어머니가 바가지로 부어주시던 등물이나, 산길 끝에 만난 계곡에서 하던 탁족(濯足)이나, 시원하게 지나던 소나기를 떠올리든지. 처음 먹은 빙설 맛을 생각하거나, 맘속에 첫눈을 내리시든지.

이런 날은 감사하는 연습을 할 것. 40도가 아니라 36도여서 다행이고, 에어컨이 없어도 선풍기로 견딜 수 있어 고맙고, 휴가를 못가 고생하지 않아서 좋고, 수박과 냉커피를 마시니 즐겁고, 감사를 하다 보니 무더위도 더 감사해지고.

그리고 자주 웃을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절대로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기. 핑계대고 미루지도 말기. 무조건 밝고 상냥할 것. 내가 행복해지면 적어도 다섯 명은 행복해진다니까.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느 임금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모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해 오라고 명했다. 수천 명 학자가 수년간 연구하고 간추려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바쳤다. 임금이 더 간결하게 만들라고 했다. 다시 수년이 흘러 종이 한 장에 담았다. 이번에도 임금이 고개를 흔들었다. 줄이고 또 줄이라고 했다. 마침내 이렇게 한 문장이 남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성인들도 비슷한 말씀들을 했다. 자업자득이니 뿌린대로 거두리라 등.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내용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역시 그렇다고 들었다. 과연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결과일 뿐이다. 생각할수록 거듭 자신에게 미안해서 눈을 감는다. 알고 보면 저기 저바람 한 자락도 공짜가 아니다. 이 무더위의 의미도 곰곰 생각해보면 대처할 방법도 넉넉히 깨우쳐질 것이다.

### 눈높이

미국의 낸시 오스틴은 136kg의 거구였다. 맞는 옷도 드물고 마음에 드는 옷은 더 구하기 어려웠다. 옷을 살 때마다 주눅이 들었던 그녀는 마침내 빅 사이즈 옷가게를 열기로 했다. 점원들도 하나같이 똥보만 골라 채용하고 화사한 색상에 유행하는 디자인만 취급했다. 고객에 대한 호칭도 사이즈별로 공작부인 후작부인 남작부인 등으로 구분했다. 거기서는 똥똥할수록 더 자랑스러웠다.

가게는 모든 예상을 깨고 날로 번창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다.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서로 편하다. 고향이 그리운 것도 같은 이치다. 누가 그대를 피하는 것은 그가 보기에 그대의 눈높이가 아직 높은 탓이다. 내가 어디서 불편한 것도 거기에 나를 낮추어 맞추지 못한 탓이다. 꽃을 잘 보려면 내가 꽃잎이 되어야 한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